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새로 부임한 김재희 주보스턴 총영사가 27일 뉴튼에 위치한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다시 오게 된 보스턴에 대한 감회와 향후 총영사관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 김재희 신임 총영사, "총영사관은 동포사회의 한 부분"

신세대 공관장으로서 변화된 동포사회에 맞춰 협력  
영사관 '문턱' 그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김재희 총영사가 12일 보스턴에 부임했다. 신임 김 총영사는 보스톤 한인사회가 만나는 첫 번째 70년대 신세대 총영사다.

27일 뉴튼 소재 총영사관에서 가진 부임 후 첫 인터뷰에서 김 총영사는 한인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총영사관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생각이 다른 신선한 접근 방식이다.

김총영사는 "보스톤 동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아니면 불편함 등의 의견을 듣고 보스톤 동포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에 맞게 권

익 신장, 적절한 보호 등을 옛날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실현" 하는 것이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할 일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한인사회와 소원해진 총영사관에 대한 질문에 김 총영사는 "20여년 전부터 영사관 '문턱' 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 이라며 영사관은 "동포사회의 일환이자 한 부 ▶▶7면으로 계속

## 대법원, 대입시 "어퍼머티브액션" 사용 금지 판결

보수 우위 대법원, 6대 3으로  
어퍼머티브액션 위헌  
흑인·히스패닉 대입 타격 전망,  
아시아계 영향은 지켜보아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대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용을 금지하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거의 반세기에 가까이 대학들이 인종의 다양성을 유지키 위해 사용해왔던 구인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법정에 제출된 연구 분석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내 명문대학에서 흑인, 라티노, 그리고 미 원주민들의 입학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 이날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의 소수 ▶▶11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 미주체전서 금3, 은6, 동2개로 34팀 중 종합 16위

### 태권도 대표팀 가장 많은 메달인 7개 메달 획득 베드맨턴서 오드리 맹 선수 여자부 단식 금메달

(롱아일랜드=보스톤코리아) 오은희 사무국장, 편집부 = 전미주한인체육대회(이하 미주체전)에 참가했던 보스톤 선수단이 금메달 3, 은메달 6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점수 299점으로 총 34개 지역협의회 중 종합 16위를 차지했다.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에서 재미대한체육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미주체전에는 재미대한보스톤체육회(회장 오진욱)이 이끈 선수, 임원 참관인 등 총 8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야구, 축구, 태권도, 수영, 등 총 21개 종목의 경기에서 배드민턴 청장년부 여자 단식에서 오드리 맹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태권도 부문에서 김 배, 손희수 선수가 금메달, 안나린, 정소영, 정한영, 홍하나 선수가 은메달, 홍순우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다. 육상경기에서는 여자 10k에서 이해준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10k 경기에서도 안영은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체전 종합 1등은 뉴욕, 뉴저

지가 2등을 차지했고 달라스가 3위를 차지 하는 등 많은 선수들을 출전시킨 주가 대부분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오진욱 보스톤체육회 회장과 홍순우 수석부회장은 김경원 선수단 단장과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영수), 허훈 시민협회 부회장, 박은희님께 “선수단에게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후원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하다” 고 말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준 배구, 배드민턴, 야구, 육상, 태권도, 탁구 등 각 협회와 소속 선수들에게도 감사” 를 전했다.

김경원 선수단 단장은 “미주체전이 범동포차원의 행사이자 체육인들의 축제인만큼 보스톤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기대가 크다” 며 선수들 각자가 부담해야 했던 필요한 경비 일부를 후원금을 통해 각종 특별 선수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보스톤 체육회 오은희 사무국장은 “스포츠를 통해 한인동포사회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미주체전에 참가한 보스톤 대표단(사진위) 오드리 맹 금메달리스트, 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대표단 (사진=보스톤체육회 제공)

의 소통과 화합,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며 참여의식 확대와 세대간 화합을 이끈 뉴욕미주체전이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고 말했다.

미주 최대의 한인사회 행사인 전미주한인체육대회는 1981년 이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년마다 열려 올해 22회를 맞았다. 이번 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으로 대회 한달 전

미국 횡단 성화봉송까지 진행하며 미주한인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개회식에서는 재미대한체육회장 정주현, 공동조직위원장인 곽우천 이석찬, 김광석 신임 뉴욕한인회장, 김의환 주뉴욕한국총영사(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대독),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브루스 블레이크먼 낫소카운티장,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등

체육계와 정치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미주체전 개최를 축하하고 전미주각지역에서 모인 선수단들을 환영했다. 개막식 2부에는 축하 공연으로 걸 그룹 여자 아이들 G-IDLE, 전통무용, 태권도시범이 이어졌다.

다음 제23회 미주체전은 2025년 LA에서 열릴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보스톤 태권도 대표팀 금2, 은5, 동1 뛰어난 성적

(롱아일랜드 =보스톤코리아) 오은희 사무국장, 편집부= 보스톤 재미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순우)가 재미대한체육회 주최로 열린 제22회 뉴욕 미주체전에 참가하여 태권도 부분에서 종합 6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24일 아델피 대학 센터볼룸(Adelphi Universe Center Ballroom)에서 미주지역 20개 태권도 지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태권도 경기에서 보스톤 태권도 선수단은 총 10명이 참가해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그리고 동메달 1개를 차지했다.

손희수 선수는 남자 중등부 품새 1등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 배 선수는 남자 중등부 겨루기 1등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나린 선수는 여자 중등부 겨루기에서 은메달, 정한

영 선수는 남자 고등부 품새에서 은메달, 홍하나 선수도 여자 고등부 품새 부문 은메달, 정소영 선수는 일반부 겨루기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참가 선수 중 오재진 선수는 여자 중등부 품새에서 4위를 차지했다. 최한빛 선수는 남자 중등부 품새에서 8강에 들었으며, 홍순우 선수는 장년부 품새 부문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뉴욕 전미주한인체육대회 태권도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3개의 경기장에서 200여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치뤄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많은 메달을 보스톤에 선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미주체전 태권도대회 준비를 위해 선수단 선발

및 여러 공로를 인정받은 홍순우 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으로 부터 온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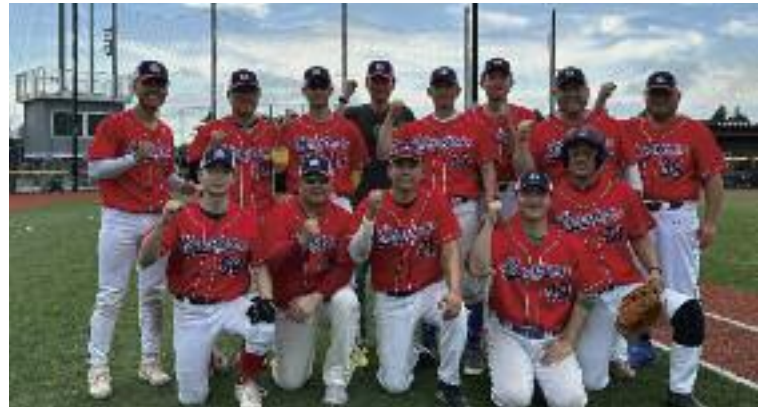
홍 회장은 “스포츠가 한인사회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더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한국의 스포츠 태권도는 한국 문화의 매력과 한국의 정신을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공공외교의 장을 만들고 있다” 고 밝히며 태권도 진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현 재미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이날 오은희 재미대한 보스톤체육회 사무국장이자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여성위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주 체전에 입장하고 있는 보스톤 선수 대표단



보스톤 야구 대표 선수단



보스톤 탁구 대표 선수단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보스톤 한미노인회, 캐비지 아일랜드 랍스터 투어 성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노인회 회원들은 지난 6월 19일에 부스베이 항(Boothbay Harbor)에 위치한 캐비지 섬을 방문해 랍스터 등 해산물을 구워먹는 캐비지 아일랜드 클럽베이크 투어를 다녀왔다.

회원들의 가족, 친지들의 동반으로 총 42명이 참여해서 즐거운 보트 투어와 해변가에서의 랍스터, 클램, 감자, 옥수수 등으로 구성된 피크닉 점심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노인회는 팬데믹 당시에는 이 투어를 하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시작 올해 본격적인 투어가 재개됐다.

노인회는 7월 19일 수요일 샐리스베리 해변(Salisbury Beach)에서 메사추세츠 한인회의 후원으로 해변가 나들이 사랑방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노인회는 “회원들이 이 나들이 행사를 통해 시원한 여름나기와 건강한 삶으로의 활력소 즐거운 추억 거리를 만들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인회는 6월 15일, MGH 노인 정신과 주진희 박사와 맥클레인 노인 임상심리학 박수현 박사를 초청하여 “치매 관리 및 간병 스트레스 알아보기”란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지식 및 치매 가족을 돌보는 방법과 돌봄 스트레스 완화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제동양의학 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승훈 한의학 박사가 노스앤도버 다문화 선교교회에서 열리는 사랑방 모임에 방문하여, 참석자 약 75명의 노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노년기 삶의 가장 유용한 자산인 건강의 중요성에 관한 이 강의는 차후 사랑방 모임을 통해 이어질 예정이다.

60대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스톤 한미노인회는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선교교회(57 Peters St, N. Andover)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지며 ▲커피 및 다과 나눔 ▲노래 교실 ▲국민 체조 ▲요가 ▲점심식사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노인들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사랑방 모임은 7월 첫째주 수요일(독립 기념일 연휴)과, 8월 첫째주 수요일(무더위 피서) 휴식을 갖는다. 문의는 한순용 노인회장(978-835-9168)에게 할 수 있다.



19일 메인의 캐비지 아일랜드를 방문해 클럽 베이크 투어를 한 노인회 회원들과 가족 (사진=노인회회)

##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 HINGHAM AFFORDABLE HOME OWNERSHIP LOTTERY



29-31 Rhodes Circle (2) 3BR Units \$220,000  
Condo fee \$200/mo. Asset limit: \$75,000

Income limits:

1P \$62,732 2P \$71,694 3P \$80,656  
4P \$89,580 5P \$96,765

App deadline 7/28/23 Free LEP translation.

Info meeting 6/28/23 @ 6 pm via Zoom

Meeting ID: 831 8904 5193 Passcode: 026959

Lottery 8/2/23 @ 6 pm via Zoom

Meeting ID: 836 9829 8334 Passcode: 810438

Info & apps: LA Assoc. (978) 758-0197

fax (978) 657-7333 kriscosta@laassoc.com

www.laassoc.com Town Hall & Public Library

TTY: 711, 978-758-0197





## 하버드아트뮤지엄 전면 무료 개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반 고흐, 클라로드 모제, 잭슨 폴락 등의 유명 화가의 작품을 하버드아트뮤지엄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하버드아트뮤지엄은 3개의 박물관과 4개의 연구센터를 무료로 입장할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하버드아트뮤지엄은 그동안 학생, 케임브리지 주민들, 그리고 하버드 구성원과 18세 이하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지난 2년 동안 일요일과 매달 마지막 목요일 무료로 개방하는 정책을 실행해왔다.

이 뮤지엄은 데이비드 락펠러 유산에서 오는 기부금과 하버드 총장실의 지원으로 전면 무료 개방정책으로 전환하게 됐다. 개방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하버드아트뮤지엄 관장 마사 테데스키는 “우리는 사람들이 입장을 하면서 어떻게 입장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기를 바랐다” 라고 개방 이유를 밝혔다.

테데스키는 7년전 관장이 됐을 때 당시의 총장이었던 로센스 바코우 총장이 재임 기간 중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 무료입장이었다고 대답했었다.

하버드아트뮤지엄은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무료로 전환하는데 있어 빠른 편이 아니었다. 이유는 25만 5천점에 달하는 유물 규모 때문이었다. 이 예술작품과 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했다고 테데스키 관장은 말했다.

이번 전면 무료 입장 전환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의 확보 외에도 그동

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부분 무료 입장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버드가 일요일과 마지막 목요일 무료입장 정책을 실시한 지난 봄 이래 평균 20%의 입장객이 꾸준히 증가했었다.

테데스키 관장은 “입장료란 장벽을 없애자 큰 관심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고 말했다.

올 여름에는 하버드아트뮤지엄에서는 “미국의 수채화, 1880-1990: 빛속으로” 라는 주제로 100여점의 미국의 유명 수채화가 전시된다. 다른 현재 전시물은 스페인 식민지시대 그림 등이다.

하버드아트뮤지엄은 32 퀸지 스트리트에 위치해있다. 개방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10부터 5시다. [harvardartmuseums.org](http://harvardartmuseums.org)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 터널 폐쇄 “로건 공항 오갈 때 2시간 더 여유 두어야”

운전자들 7월 5일부터 터널 폐쇄 동안 수마일 정체 겪을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리버와 보스톤 동북쪽 해안에서 보스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마일의 차량행렬이 늘어설 수 있으며 로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2시간의 여유를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교통부 관계자는 28일 발표했다.

자녀든 걸리버 주 고속도로국장은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섬너터널 폐쇄의 충격은 “분명하고 즉각적인 것” 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껏 주정부의 누구보다 강력한 경고다.

걸리버 국장은 “분명히 말해 보스톤 동북쪽 해안에서 오거나 로건 공항을 간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교통정체와 혼잡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가능하면 많은 차량들이

로건공항 출입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걸리버 국장은 MBTA 블루라인과 일부 버스노선이 폐쇄기간 동안 무료로 운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저렴하게 보스톤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스포트 리사 위랜드 대표는 로건 공항을 이용시에는 추가적으로 약 2시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MBTA 필 잉 총괄국장은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이번 공사는 향후 보스톤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J.K. PLUMBING & HEATING

##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 978.303.7000

#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mailto: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안전한 도시 뉴튼을 뒤흔들었던 노부부와 모친 살인 사건

경찰, 보안카메라와 침실 바닥의 족적으로 범인 식별  
범인은 41세 퍼거슨, 지하실 창문 통해 침입, 격투 흔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안전한 타운 중의 하나인 뉴튼(Newton, MA)에서 노부부와 모친 일가족 3인을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25일 발생해 뉴튼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미들섹스 지검과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만에 뉴튼 노부부 일가족 3인을 살해한 범인을 체포해 신속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던 관계로 이례적인 미들섹스 카운티 지검장의 문단속 경교로 주민들은 불안에 시달렸다.

체포된 남성은 41세의 뉴튼 거주민인 크리스토퍼 퍼거슨으로 73세의 길다디아모레(73), 브루노 디아모레(74) 부부 그리고 길다의 모친 루시아 아피노(97)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동안 공격성향을 보이지 않아 왔으나 증세가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지검장과 뉴튼 경찰은 퍼거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히지 못

했다. 라이언 지검장은 “현재로서 퍼거슨과 피살된 일가족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라이언 지검장에 따르면 퍼거슨은 하나 이상의 지하실 창문을 부수고 이를 통해 집으로 침입했다.

침실에서는 침입자에 대해 싸웠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라이언 지검장은 “첫번째 베드룸에서는 부서진 가구와 피문은 크리스탈 문진(냅킨을 날리지 않도록 눌러두는 돌) 등 격투의 흔적이 역력했다” 고 밝혔다.

특히 베드룸 밖에 있는 세라믹 타일 바닥은 포렌식 팀이 범인의 족적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수사팀은 범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족적을 식별하는 특별한 화학물질과 다양한 포렌식 자료를 사용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라이언 지검장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과학수사대는 특수 화학물질을 발라 범인이 남긴 독특한 족적의 지문을 채집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검찰과 수사관들은 26일 밤 퍼거슨의 신발 밑창에서 확보한 발바닥 지문이 화장실 인근 바다에서 발견한 지문과 일치한 것을 통해 범인을 특정했다. 이미 경찰은 퍼거슨이 한 가정집의 비디오에 일요일 오전 5시 20분께 신발도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걷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

경찰은 퍼거슨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탐문에 나섰으며 병원에서 그를 만난 경찰은 바로 그가 가정집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람임을 확인했다. 크리스토퍼 퍼거슨은 뉴튼 지방에 49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집에서 3명의 노부부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27일 기소됐다. 그는 기소인부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평소 피해자들은 참석하던 아워 레이디 헬프 오브 크리스찬(Our Lady Help of Christians) 교회에 참석하지 않자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이웃 친구에 의해 오전 10시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유가족으로 3명의 자녀와 5명의 손자를 두었다.

## 글러스터 해변 주차장이젠 온라인으로 예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굿하버비치(Good Harbor Beach), 윙거식(Wingaersheek) 등 글러스터의 해변을 갈 때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치였다. 때문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방문을 포기할 때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글러스터 타운은 온라인으로 주차장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해서 과거의 선착순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던 관습을 바꿨다.

글러스터는 5월 해외의 블링케이란 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버전의 주차예약 시스템을 시작했다. 방문객들은 예약하는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지동적으로 차의 번호판을 인식해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글러스터 주민이 아닌 방문객들은 주중 \$30, 주말에는 \$35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한다.

<https://gloucester.blinkay.app/login>

글러스터의 3개의 해변에는 각각 약 500여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다. 타운 주민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 150에서 300여 개

정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주차 예약은 약 10일 이전부터 할 수 있으나 환불은 되지 않는다. 예약 후 주차 공간을 예약하면 오후에도 착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

임스위치의 크레인 비치(Crane Beach)의 경우 매주 월요일에 웹사이트에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트러스티 회원이 아닌 경우 주중에는 \$40, 주말에는 \$45이다.

<https://thetrustees.org/content/crane-beach-admissions/>

홀(Hull)에 위치한 내태스켓 해변(Nantasket Beach)의 경우 매사추세츠 DCR이 관리하며 매사추세츠 거주자의 경우 \$15, 타주 거주자의 경우 \$40의 주차비를 부담한다. 타운은 Yodel 앱을 통해 이를 관리하며 전통적인 지불 방법을 사용기도 한다. 그러나 내태스켓의 경우 미리 주차권을 구입한다고 해도 반드시 주차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 김재휘 신임 총영사, 한인사회에 적극 참여

▶▶1면에 이어서

분”이라고 강조했다.

부임 직전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 총영사는 보스턴에서 첫 공관장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대통령의 해외방문, 해외 귀빈들의 한국방문 업무를 총괄했던 김 총영사의 경험이 보스턴 한인사회에 새로운 영사관의 느낌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보스턴에서 유학한 바 있어 이번이 보스턴과 2번째 인연이다.

김 총영사는 도착 후 한인회장 등 지역 주요 단체장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대화를 가졌으며 30일에는 단체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총영사는 재임 중 한인사회의 권익보호, 2,3세대의 정체성을 위한 문화사업, 그리고 한국기업 진출도움, 유학생들의 학업 장려 및 취업지원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김 총영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해외 첫공관장 부임인데 보스턴에 언제 왔는지, 첫 느낌은? 휴스턴에서 영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아는데 감회가 있을 것 같다.

감회가 새로운 보스턴 부임이다. 2000년부터 2002년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주 월요일 도착해서 주말 동안에 보스턴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보스턴은 옛날과 많은 부분이 비슷했다. 그러나 보스턴은 활동이나 산업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0년 켈달스퀘어에는 MIT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켈달스퀘어는 천지개



김재휘 총영사

벽한 느낌이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휴스턴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했다. 휴스턴은 물이 보글 끓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 데 보스턴은 은근한 온도가 올라가면서 끓는 차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는 것 같다.

▶부임 직전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의전비서관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업무였는지 한인들에게 설명해달라.

저에 대해 소개 드리면 외교부 전통 외교관료로 26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이번이 6번째 해외 근무다. 유일하게 보스턴만 2번째다. 외교부에서는 유럽 담당 과장, 조직이나 예산 인력, 인사 담당했다.

공교롭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번은 청와대 그리고 1번은 용산 의전비서관실에서 3번을 근무할 기회가 있었다. 의전비서관실에서 외교부 출신으로 대통령의 해외방문, 국내에서의 주요인사들의 방한 접수,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했다. 작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행사를 총괄해서 진행했다. 이번 4월 우리 대통령이 국민 방문하셨을 때도 시작 단계부터 진행 등의 역할을 했다. 우연치 않게 한번도 갖기 힘든 역할을 3번이나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즐겁고 재밌는 경험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스턴 한인사회와 곧 만나게 될 예정인데 총영사로서 한인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보스턴에 도착한지 1주일이다. 총영사로서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했으며 여기 계신 동포들과 상의하면서 문제들을 정리해나갈 것이다. 한인회장, 노인회장, 평통회장 등께 전화 드렸다. 직접 뵈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보스턴 한인사회는 미주 지역에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동포들이라 생각한다. 올해가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됐고, 서울에서도 재외 동포청이 시작되어

서 국내적으로도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시점에 와있다. 서울에서의 시각을 보스턴 한인사회 투영해 보면 1세대의 노력과 희생으로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가운데 1.5세대 2세대들이 새로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동포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좋은 예다.

저희 공관장들도 세대가 바뀌었다. 제가 71년생이다. 말씀드린대로 보스턴 동포사회가 새로운 동포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총영사관이 변화에 발맞춰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총영사로 재직하는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지? 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일은 무엇인지?

첫째, 가장 우선적인 일은 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의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권리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보스턴 동포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에 맞게 불편함, 어려움 등 의견을 듣겠다.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 보호 등 가장 고전적인 총영사관 임무를 바뀐 현실에 새로운 도전에 맞춰서 새로운 방식으로 열심히 하겠다.

둘째는, 동포사회가 활기를 띠려면 비즈니스, 경제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관으로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스턴의 생명공학 생태계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총영사관으로서 보건 사업진흥원과 협력해 우리기업의 보스턴 진출을 도울 것이며 또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 및 투자도 그런 부분도 도울 것이다.

한국 유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H-1B 등 비자문제들도 워싱턴 대사관과 협력해 추진하겠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들

이 어떻게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지 방법도 모색하겠다.

세번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한국 문화가 이미 세계 수준의 문화이기에 이에 걸맞는 문화로서 대우받고 현지에서 소개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청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한국 전시실 문제는 당당하게 한국 문화를 요청해서 그쪽에서도 한국문화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제대로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과거 총영사들은 총영사관의 문턱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었고 한인사회와의 왕래가 많았다. 그러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폐쇄성을 떨 수 밖에 없었고 여전히 이전의 친밀감은 느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처음 해외 공관에 근무한 것이 2000년대로 20여년 전이다. 그때부터 동포사회가 “총영사관 문턱이 높다. 동포사회와 대화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도 동포사회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교부에 몸담고 있고 공관에 나와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총영사관이건 대사관이건 동포사회가 거리감을 느낀다면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잘못된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많았는데 제한이 풀렸다. 지금 총영사관은 동포사회의 일환이고 한 부분이다. 동포사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들을 것이고 바로 잡을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동포 여러분을 만나뵈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동포 행사에 총영사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어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적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t@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가스 스토브 사용시, 간접흡연보다 해로운 발암물질 방출

### 스탠포드 연구팀, 가스 스토브 사용시에는 반드시 환기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가스 스토브 화덕 사용이 암을 유발하는 벤존의 실내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가스 스토브에서 나오는 벤존의 농도는 간접흡연을 하는 것 이상이며 야외에서 검출되었을 때 지역 당국의 조사를 유발할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포드 지속가능성 도어스쿨 (Doerr School of Sustainability)의 연구진들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87개 가정에서 벤존 방출량을 측정했다. 고열 가스 스토브를 사용 또는 화씨 350도로 설정한 45분간 오븐을 사용하는 경우 3분의 1의 가정에서 간접흡연에서 보이는 실내 농도 상당 이상인 벤존이 검출됐다.

그레이트 LA 지역과 콜로라도 프론트레인지 지역 학교 인근에서 유사한 수준의 벤존의 농도를 발견하자 지역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야니 카스탄 씨는 "깜짝 놀랄만한 결과였다. 야외에서 발견했을 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만한 수준의 벤존이 농도를 일반 가정집의 스토브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라고 말했다.

환경과학테크놀로지 저널에 이번 주 출판된 연구는 가스 스토브를 켜서 불태웠을 때 방출하는 벤존의 양

을 계측한 첫번째 연구였다. 이번 연구 외에도 가스 스토브 사용의 유해성과 심각한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

유엔 암연구 국제기구와 미 환경청은 벤존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벤존을 흡입하는 경우 백혈병과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다. 의사들은 극미한 수준의 벤존에의 노출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탠포드팀은 베이컨과 생선을 튀기면서 음식에서 나오는 방출량도 측정했으며 이는 무시해도 좋을만한 극소량이었다. 전기 인덕션 스토브의 방출도 미세량이었다.

가스 스토브는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같은 유해한 오염물질을 방출하며 심지어 스토브를 켜지 않은 상태임에도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을 방출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출판된 연구는 12.7%의 어린이 애스마는 가스 스토브와 연관이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가스 스토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로 일부 시와 주에서는 거주지역에 천연가스 설치를 점차 중단키로 한 곳도 있다. 연방정부는 가스 스토브의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이슈는 정치화되어

있다. 14일 하원 공화당은 가스 스토브를 위험한 물건으로 규제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연방기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같은 모습은 과학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박사 후보인 카스탄은 이번 연구가 대부분 뉴욕 등지의 아파트보다 훨씬 실내 면적이 넓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의 단독주택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탠포드에서 최근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뉴욕의 작은 아파트 부엌의 가스 스토브에서의 벤존 농도가 훨씬 높았으며 실내에서 빠르게 퍼져 수시간동안 머무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 연구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어린이 백혈병을 연구했던 병리학자인 제니스 커시 박사는 이번 연구팀이 측정된 가스 스토브 방출 벤존의 양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커시 박사는 실내에서는 벤존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약간의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덕션 플레이트를 구입하거나, 가능하면 토스터 오븐, 전기 주전자, 에어 프라이어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커시 박사는 무엇보다 가스 오븐을 사용하게 될 경우 환풍기를 사용해 반드시 환기시킬 것을 권장했다.



##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교외에 성공여세 몰아 벌링톤에 개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 본사를 둔 스미스앤월렌스키 스테이크하우스가 벌링톤에 새로운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개점했다.

스미스앤월렌스키는 웰슬리와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개점해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여세를 몰아 이번달 15일 벌링톤 점을 열게 됐다고 김 레피니 최고마케팅 책임자가 보스톤비즈니스저널에 밝혔다.

레피니 CMO는 웰슬리와 컬럼버스의 대 성공은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영향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 다운타운으로 가기보다는 주로 교외에 있는 식당에서 시간을 더 보내는 것으로 인해 혜택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교외로 옮기는 현상이 일고 있기도 하다.

또 스미스앤월렌스키의 최고급 분위기에서 특별한 경축일에 식사를 하거나 축하파티를 하고

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이 스테이크 레스토랑은 보스톤 하버와 웰슬리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백베이 지점은 2018년 문을 닫았다.

웹사이트 메뉴에 따르면 스미스앤월렌스키의 시크니처 프라임 에이지드 본인립아이(28온즈)는 \$98, 프라임 드라이-에이지드티본(26온즈)은 \$90, 프라임 뉴욕스트립(16온즈)은 \$72이다. 미국내 상위 2%의 고급 육류를 골라 28일 동안 숙성시켜 최고의 육질 풍미를 자랑한다는 설명이다. 사이드는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스미스앤월렌스키는 벌링톤을 고른 이유에 대해 두개의 고속도로가 만나고 각종 산업 단지 그리고 소매점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스토랑은 92 Middlesex Turnpike에 위치하고 있다.

hsb@bosstonkorea.com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보상금 신청 (신청서·신청서) → 2. 제주4·3위협희생자 심의 (심의위원회) → 3. 결정서 결정 및 통지서 송부 (결정서·통지서) → 4. II. 보상금 청구 (청구서·청구서) → 5.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4·3중앙위 결정 신청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4. 1. 31	2024. 2. 1 ~ 2025. 5. 31
현금	2,117명	2,500명	2,500명	2,500명

- 희생자의 사실성외 지니게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 사본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5차)에 신청함
- 제정부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II. 보상금 청구**

- 대상: 제주4·3위협희생자 심의·결정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부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족)도 포함)
- 청구기간: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청구서류 (제외거주지):
  - 보상금 지급 청구서(신청서 별지 제7호외(3)서식)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서(신청서 별지 제7호외(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서가 없는 청구인(유족)은 유족인명서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해외국면: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요통행증, 운전면허증 등 포함)
    - 외국국면: 여권 및 국외로가 신분증 사본
    - \* 여권 국면(유족)은 여권 사본(본인)을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유족 포함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위임장(별지 서식)은 국가 등록 공인인사(법정대리인)가 작성

**III. 신청서(제외거주지)**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신청서 별지 제7호외(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사실서)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해외국면: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요통행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포함)
  - 외국국면: 여권 및 국외로가 신분증 사본
  - \* 여권 국면(유족)은 여권 사본(본인)을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생외거주지 송금명칭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서가 없는 청구인(유족)은 유족인명서 제출

**IV.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13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6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송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62-64-710-8450, 710-8841~6
- ☎ 53122 제주시 문연로 59(연평)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송의 5분요가



# 등살, 겨드랑이살, 팔뚝살 정리하고 뒷태 살려주는 최고의 운동

민소매의 계절이 찾아오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중의 하나가 팔뚝! 해변에 놀러가 수영복을 입으면 더 눈에 띄는 겨드랑이 주변과 등에 붙어있는 지방들..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올해 여름맞이 상체 다이어트 시퀀스를 준비했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은 어떠한 도구도 필요없이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구요, 같은 동작을 다른 위치에서 포지셔닝만 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만 반복하면 금방 숙지하고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굽은 등과 앞으로 말린 어깨 펴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니 한번에 끝내지 마시고 주 3회 이상 관련 영상 되풀이 하시면서 자세교정 효과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은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3) 살 빠지는 요가! 등살 빼고 싶으면... 편을 찾아 따라하면 더 정확하고 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 1. Wide Squats + Swan Swings - 팔, 어깨 라인 정리, 등 근육 강화, 안벅지 슬리밍 효과

1단계 두 발을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어 스쿼트로 앉아줍니다.

2단계 무릎을 접을 때 팔을 길게 뻗어 날개 짓하듯 천정쪽으로 보냈다가 다리를 펼 때 팔을 내립니다.

3단계 척추를 편상태를 유지하며 두동작을 이어서 10-15회 이상 반복합니다.

4단계 두 팔을 길게 뻗고 등을 강하게 수축 하는데 집중합니다.

TIP! 하체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 무릎을 발가락과 같은 방향으로 벌려주고 복부의 힘을 쓰며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 2. Back Extension + Swan Swings - 코어와 척추 강화, 자세교정 효과

1단계 배를 대고 누워서 두다리과 팔을 중심부에서 멀어지게 뻗어줍니다.

2단계 숨을 들이쉴 때 두 팔을 머리 너머로 보냈다가 가슴을 들었다가 숨을 내쉴 때 등을 조이고 팔을 몸통 옆으로 조여줍니다.

3단계 손을 뒤로 가져갈 때 겨드랑이까지 합

게 조이며 두 동작을 이어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4단계 가슴이 바닥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가슴을 바닥에 대고 팔만 움직여도 등을 수축할 수 있을 거예요.



TIP! 등에 처음부터 자극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하면서 반복하다보면 어느 순간엔 보이지 않은 등 근육의 움직임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http://www.yogafullness.life)

##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mailto:sunautobody@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보수 우위 대법원, 6대 3으로 어퍼머티브액션 위헌

## 40여년간 유지된 판결 뒤집어 인종 요소 고려 금지

▶▶1면에 이어서

인종 우대 입학 제도가 평등 대우를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반했다며 6대 3 및 6대 2로 폐지 판결을 내렸다.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 이하 SFA)이 2014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은 이번 대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로 미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AP와 NOTC센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들은 대학들이 입시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시켜서는 안된다고 답했지만 인종요소가 입학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는 안된다고 답했었다.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된 판결을 뒤집은 이번 대법원의 이정표적인 판결은 일반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큰 영향이 없지만 가장 경쟁이 심한 명문대학 입시에서는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일부 학교의 경우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입학 50% 가량 줄었다고 ABC방송은 보도한 바 있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연방 대법원 전경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전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 행정명령으로 고용 부문에서의 차별금지 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이 도입됐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 9개 주

는 공립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책을 금지한 상태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이 대법 판결에 따른면서도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 이란 전망도 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 바이든 "미국 경기침체 없을 것"

## 경제 강력하고 어느 때보다 낙관적... "중국, 엄청난 문제 있어" "美와 전세계 민주주의 위기... 서방 단결 위해 유럽 정상과 180시간 대화"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닥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아시아 안보 이슈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메릴랜드주(州)에서 열린 두 차례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지금 미국 경제는 강력하다"며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강력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언급은 28일 시카고에서 예정된 바이든표 경제정책인 이른바 '바이든노믹스'(Bidenomics)에 대한 연설을 앞두고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경기회복 자신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나는 오늘 내 경력 중 어느 때보다 미국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1천3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수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중산층은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방을 하나로 묶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정상들과 180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가능성'이라는 한 마디로 미국을 정의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또 "중국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미친 피해에 자신이 망연자실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트럼프 시대

이후 우리가 정말로 돌아왔는지를 궁금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영혼을 회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며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고 설명한 뒤 "이 나라를 단결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낙태 문제에 대해 그는 자신이 가톨릭 신자임을 거론하면서 "나는 낙태를 좋아하지 않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옳았다"고 말했다.

작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여성의 낙태권을 폐기하면서 미국 사회가 극명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면서 연방법 제정을 통해 이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기 폭력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총기 소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총기 소지 제한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 美 1분기 성장률, 2%로 대폭 상향...경기침체 우려 ↓

### 소비지출·수출 증가로 美경제 힘 증명...실업수당 청구도 감소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경제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0%로 최종 확정됐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1분기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1.3%)에서 0.7%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최초 발표인 속보치(1.1%)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뉘어 발표된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4%)도 크게 상회한 결과다. 이러한 발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연내 경기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관측을 무색하게 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0연속 금리인상 속에서도 소비자지출 증가가 1분기 성장률을 더 끌어올렸다.

잠정치 발표 당시 3.8%(연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던 소비자지출은 이번 확정치에서 4.2% 증가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수출과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의 상향 조정도 1분기 성장률이 더 높아진 원인으로 꼽혔다. 기업 재고투자 감소가 전체 GDP를 2.1%포인트 끌어내렸으

나, 소비자 지출과 수출이 더 늘어난 것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는 분석이 제기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성장률에 미 언론들은 미국이 경기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당초 전망이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GDP 발표에 앞서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0.2%)을 깨고 0.3% 깜짝 증가하고, 신규 주택 판매와 내구재 수주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잇따른 바 있다.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도 미국 경제의 힘을 보여준다.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지난주(6월 18~2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9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6천 건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6만5천 건)도 크게 회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74만 건으로 1만9천 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1~2%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탄탄한 경제 지표가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내년 이후 경기침체가 초래될 것이라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유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인/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인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각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구조종 / 시신경영양 / 기타 필요검사

3.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4. 4050 노인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5.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람을 통한 예약시 특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유람이 경험했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성진  
• 20여년 수술진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유람 안과 성모안과

1-604-001-8888 (Toll-free)  
02-345-4040 (D: HURAMKOREA)  
haram@haram.or.kr www.haramkorea.com

유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인/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인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각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구조종 / 시신경영양 / 기타 필요검사

3.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4. 4050 노인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5.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람을 통한 예약시 특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람 안과 성모안과

1-604-001-8888 (Toll-free)  
02-345-4040 (D: HURAMKOREA)  
haram@haram.or.kr www.haramkorea.com

#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잔해서 탑승객 추정 유해 발견

## 심해 내파 잠수정 잔해, 지상으로 인양...사고원인 분석 착수 찌그러진 구조물·파손된 내부 기관 등 확인

(뉴욕·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송진원 기자 = 대서양 심해에서 내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태닉호 관광 잠수정의 잔해에서 28일(현지시간)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고 AP·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날 오후 타이탄 잔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유해도 함께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의료 전문가들이 유해를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타이태닉호 뱃머리로부터 488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된 타이탄 잔해는 테일콘(기체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 등 5점이다.

캐나다 언론들은 테일콘과 함께 잠수정의 동근 선창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안경비대는 지상으로 대형 잔해물을 옮기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사용했지만, 찌그러진 구조물과 파손된 내부 기관 등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해안경비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캐나다 교통안전위

원회와 함께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이슨 뉴바우어 해안경비대장은 성명에서 타이탄 잔해가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찾아내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잠수정의 압력실에 문제가 생겨 심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파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파란 외부 압력에 의해 구조물이 안쪽으로 급속히 붕괴하며 파괴되는 현상을 뜻한다.

해안경비대 역시 일단 잔해의 형태로 볼 때 압력실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이탄은 6.7m 길이에 탄소섬유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잠수정으로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우고 해저 4천m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18일 잠수정 운영회사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톡턴 러시 최고경영자(CEO)와 영국 국적의 역만장자 해미쉬 하딩, 파키스탄계 재벌 사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18일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심해에서 인양된 후 캐나다 해안경비대 항구에서 육지로 옮겨지고 있다

18일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심해에서 인양된 후 캐나다 해안경비대 항구에서 육지로 옮겨지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 등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나흘 만에 잠수정 잔해가 발견됐다. 탑승객도 전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났다.

koman@yna.co.kr



18일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 전주 명물 '당근김밥' 영업종료...전국각지 손님들 5시간씩 긴 줄

### 40여년 전 사우나에서 팔며 시작...건강상 이유로 이달까지만 영업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입 안 가득 퍼지는 달짝지근한 맛이 좋아서 자주 찾아왔는데, 이제 영영 못 먹는다니 너무 아쉽네요."

전북 전주의 명물 '오선모옛날김밥'이 오는 30일 영업을 종료한다. 40년간 가게를 운영해온 오선모 사장이 허리 협착증과 관절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더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주황빛 당근으로 꽉 찬 오선모옛날김밥을 더 이상 먹지 못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한 달 전부터 김밥집 골목 앞은 영업시간인 오전 5시가 되기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업 종료 3일 전인 28일에도 손님들 수십 명이 4시간 넘게 김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원에서 오전 3시에 출발해 6시 30분께 도착했다는 최수현(31)씨는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먼 길을 왔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하는 이다솜(29)씨도 "평소엔 30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오전 8시부터 4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던 곳이라 문 닫기 전에 꼭 와보고 싶었다"고 아쉬워했다.

두 사람 모두 정오가 넘어서야 김밥 10줄을 손에 들었다. 지친 기색이 없었지만 몇 시간씩 기다린 끝에 대면한 김밥이 감격스러운지 김밥집 간판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긴 뒤에야 골목을 떠났다.

수 시간을 기다린 손님들은 김밥

을 마는 사장을 향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건네고 김밥집을 떠났다.

'가끔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사장님 집에 가서 김밥을 먹으면 안되냐'며 애정 어린 투정을 부리는 손님들도 있었다.

대기에만 수 시간이 걸리면서 중고 애플리케이션에 '김밥 2줄을 3판원에 사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가게 벽면 곳곳에는 김밥을 재판매할 경우 불법이라는 완산구청의 경고장이 붙어있었다.

오선모김밥의 역사는 40여년 전으로 올라간다. 오선모 씨는 정성스레 썬 김밥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사우나나 남부시장 등을 돌며 팔았다.

이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산고등학교 주변에서 김밥을 팔다가 2015년께 한 방송에 간판도 없는 주택가 김밥집으로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 뒤 현재 위치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골목길에 식당을 내고 오씨가 그의 자녀와 함께 영업을 이어왔다.

햄이나 맛살 같은 재료 없이 당근과 계란, 단무지로만 맛을 낸 이 김밥은 지역 명물이 됐다. 전주 시내에 당근을 주재료로 한 김밥집이 우후죽순 생기기까지 했다.

"상표를 팔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 팔지 않느냐", "체인점을 내시는 건 어떡냐"는 손님들의 질문에 사장은 "그런 사람들이 100명도 넘게 있었다"며 "너무 지쳤다, 오늘도 김밥 마느라 힘들어서 더 이상 대답을 못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오선모김밥에서 오선모 사장의 자녀가 김밥을 만들고 있다. 40여년 전 오선모씨가 시작한 이 김밥집은 9년 전부터 오씨가 그의 자녀와 함께 운영해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까지만 운영한 뒤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대신 작은 가게 한쪽에 손 글씨로 쓴 "그동안 전국에서 멀리까지 찾아주시고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영업 운영이 어려워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문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10년 넘게 이 가게의 단골이던 전양수(51)씨는 "인근에서 펜션을 해서 숙박객들한테 전주 맛집으로 자주 추천했는데, 당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맛있으면서 참 좋아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단체 주문이 있는 날이면 지정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김밥을 마느라 사장님이 손목이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했었다"며 "문을 닫고 나면 이 김밥이 참 그리울 것 같다"고 덧붙혔다.

warm@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NE 30th - JULY 6th, 2023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STARS, STRIPES, AND SMILES WITH AN INDEPENDENCE DAY RICE CAKE!  
 Novice bakers, here's your chance to bake up a super easy rice cake fit for a stellar Fourth of July celebration!  
 H 마트와 함께 만든 성조기 모양 케이크로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세요!

Honey Ataulfo Mango 하니 아탈포 망고 BOX <b>\$12.99</b>	Packed Garlic 짜마늘 5 PCS/PKG <b>\$1.99</b>	Kabocha 단호박 LB <b>\$1.49</b>	Fuji Apple 후지시과 LB <b>\$1.99</b>	Hami Melon 하미 멜론 LB <b>\$0.99</b>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BOX <b>\$24.99</b>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b>\$0.99</b>	Ginger 생강 LB <b>\$2.99</b>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b>\$3.99</b>	Sweet Potato 고구마 LB <b>\$2.49</b>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카이크용) LB <b>\$9.99</b>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b>\$5.99</b>
Fresh Chicken Wing 신상 닭날개 LB <b>\$2.99</b>	Frozen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FAMILY PACK/LB <b>\$6.99</b>
Frozen Smoked Duck 훈제오리 SLK/TO/LB <b>\$19.99</b>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신상 LA 갈비 SLK/EA/LB <b>\$15.99</b>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Cooked Topshell (Rockshell) Meat 소라살 LB <b>\$11.99</b>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LB <b>\$8.99</b>
Head-on Black Tiger Shrimp 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 1/2-LB <b>\$21.99</b>	SUHYUP Frozen Jeju Beltfish 수협 제주 은빛갈치 PRODUCT OF KOREA 330 UP/PKG <b>\$6.99</b>
HWAWOODANG Frozen Stir-Fry Cuttlefish/Squid 하오방 김오징어 /오징어 볶음 SPICY/12.65 OZ/PKG <b>\$3.99</b>	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LB <b>\$9.99</b>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미어 쌀 15 LB <b>\$16.99</b>	NONGSHIM Chapagetti Jjajang Noodles 농심 짜파게티 4.48 OZ X 16 EA/BOX <b>\$17.99</b>
PULMUONE Cold Noodles 풀무원 평양/동치미 물냉면/취생냉면/임흥/국물이 자작한 비빔냉면 SELECTED VARIETIES 15.7-36.3 OZ <b>\$4.99</b>	HAJO Canned Whelk 해오름 굴볶이 캔 14.1 OZ <b>\$5.99</b>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정 유기농쌀 15 LB <b>\$49.99</b>	RAW NATURE Brown Rice 자인담은 현미 15 LB <b>\$15.99</b>	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b>\$15.99</b>	HAJO Yaki Sushi Nori Premium Roasted Laver 해오름 구운 스키김 50 SHEETS 4.93 OZ <b>\$6.99</b>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b>\$10.99</b>
SEMPIO Soy Sauce 샘피오 진간장 S/급 RICH & MELLOW/ RICH & DELICATE 5.748 FL OZ <b>\$4.99</b>	HAJ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2.2 LB <b>\$3.99</b>	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푸드 순장 100% 현미 태임초 쌀 고추장 6.6 LB <b>\$15.99</b>	OSAKI BRAND Fish Cake 오사키 게맛살 1.1 LB <b>\$5.99</b>	HAJO Pickled Radish Wrap 해오름 썬무 WASABI SWEET & SOUR ONION 12.34 OZ 2\$4 FOR
CROWN Shin Zzang Snack 크라운 신짱 8.64 OZ <b>\$2.99</b>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CORN SOUPY SEAWEED 5.6 OZ <b>\$2.99</b>	HELLO! Wall-mountable Desk Fan 헬로! 탁상용 선풍기 -519.99 <b>\$13.99</b>	HELLO HOME UV Sun Visor 헬로홈 UV 선캡 -57.99 <b>\$5.49</b>	TOMY Pirate Pop Up Game 티미 해적 동아저씨 -517.99 <b>\$13.99</b>

**JINGA** 진가 빈친  
JINGA SIDE DISHES  
World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outdo you on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Can't find the item you're looking for? Please contact us at 877.427.7386.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by as well as their own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locked sid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locked sid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올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 제 봉</b> DIRECTOR 781.654.5281 <small>jebeo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팀장 한 준 희</b>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small>junh@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cash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hristi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신 보 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bo@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다이애나 김</b> 617.271.2007 <small>cd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줄리 김</b> 578.434.2043 <small>juli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니키 박</b> 617.447.0591 <small>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피터 박</b> 617.780.7835 <small>de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지나 최</b> 578.888.3248 <small>de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여 권 주</b> 401.935.3397 <small>yoonj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시라 파크</b> 617.888.5787 <small>sa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그레이스 김</b> 617.435.7713 <small>grac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현수 김</b> 617.598.8973 <small>hye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라 송</b> 213.303.0397 <small>mi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키 파크</b> 413.507.1402 <small>miki@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선종태</b> 617.913.3369 <small>sungh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최헌진</b> 617.877.0387 <small>he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영 김</b> 781.850.3412 <small>mye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은혜숙</b> 781.899.1214 <small>msu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장은영</b> 617.315.1162 <small>je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호준</b> 617.543.5728 <small>jiho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레이철 김</b> 617.852.7489 <small>euiseo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Tammy Woolfolk</b> 917.224.5610 <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Nancy Wang</b> 617.230.9952 <small>nanc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Shirley Zhao</b> 857.231.0316 <small>shirle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Whyan Yu</b> 617.385.2718 <small>why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Xian Dole</b> 413.322.8979 <small>xi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u Jiang</b> 240.449.0117 <small>lu@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ohn Tran</b> 617.408.986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Rebecca Phu</b> 617.833.1083 <small>re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chael Somma</b> 978.873.0376 <small>michae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nda Tu</b> 857.210.889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un Wang</b> 649.276.2623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ly Wang</b> 617.338.7212 <small>lil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Crystal Wei</b> 413.208.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gela Zullo</b> 774.288.8199 <small>angel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제이코 김</b> 781.598.3409 <small>jeik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강현</b> 857.280.0434 <small>i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thony Tran</b> 857.288.4859 <small>antho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ra Delangre</b> 413.237.1586 <small>mi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전국민 한두살 어려진 첫날... "만으로 ○○살입니다"

관공서는 큰 혼란 없어... 결혼정보업체는 당분간 연나이 학교·유치원에선 나이 낮아서 '울상'도... 곳곳서 화제 만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울림 최 원정 기자 =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졌다.

관공서에선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으나 오랫동안 '한국 나이'를 써왔던 만큼 만 나이가 관습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여권 업무를 보던 직원은 "기존에도 여권법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여권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했다"며 "현장에서는 바뀌는 게 없어 큰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 업무와 관련해 외교부에서도 이날 '변경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내려왔다고 한다.

서울 성동구 주민 문모(56)씨는 "취미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자기소개할 때 누구는 한국 나이, 누구는 만 나이로 올려 혼란이 있었다"며 "한 살이라도 어린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생일 하루 차이로 나이가 달라지면 헷갈릴 듯해 태어난 연도로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5)씨는 "회사에서 나이가 어린 편이라 나이를 공개하면 업무 처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생길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며 "나이를 얘기할 일이 생기면 한국식 나이로 얘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28)씨는 "소개팅을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이인데 앞으로 남자가 만나서 나이를 말하

면서 '만 나이냐, 연 나이냐'를 따져야 할 것 같다"며 웃었다.

같은 반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가 차이가 나게 된 학교나 유치원에선 당분간 여러 '에피소드'가 생겨날 조짐이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저학년은 나이 한살씩 더 먹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제 두살 더 어려워지는 거냐'며 우는 일도 많았다"며 "지금도 생일이 하루 빠르다고 '형이라고 부르라'는 아이가 많은데 나이로 나눠 다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교사 이모(26)씨는 "아이들에게 생일이 지났으면 다섯살이고 안 지났으면 네살이라고 설명해 주니 다섯살 아이가 웃으며 '아기다 아기'라고 장난쳤다"며 "만 나이로 인한 혼란은 이제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이가 중요한 결혼정보회사나 연령대별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여행사에선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보류한다는 곳도 있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관계자는 "만남에 나이가 중요한데 갑자기 바뀌 버리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 당분간 원래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배우자감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행사는 6세 이상부터 요금을 받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약 사이트에 여전히 "6세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 기준"이라고 안내했다.

이 여행사 관계자는 "직원들도 아이들 개월 수까지 확인하는 게 힘들 것 같다"며 "올해까지는 계속 한국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만 나이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 모든 사람 인식이 바뀌면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혜택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도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20대 이용자를 위한 상품을 출시한 한 통신사는 '만 19~29세'인 이용 대상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만 19세가 한국 나이 20~21세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셈이다.

만 나이 통일에도 계속 연 나이를 적용하는 예외도 있어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

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인 만 나이가 19세 이상이 기준이다.

왕십리역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2004년생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며 "달라지는 게 없어 걱정은 없다"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우려돼 잘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직원 김모(33)씨는 "본사 직원이 지점을 돌아다니며 앞으로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어떤 게 바뀌는지 알려주러 온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술과 담배는 기존처럼 2004년생부터 살 수 있다고 해 주민등록증을 계속 확인하

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결혼 시장에 뛰어들어 이들은 만 나이 사용을 반기워하면서도 당장 통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취업준비생 박모(31)씨는 "한국 나이 32세인데 이제 만 나이를 사용하면 30세가 된다"며 "그러면 채용 담당자가 더 좋게 봐주는 건지, 채용 때 불이익을 덜 받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송모(29)씨는 "한국 나이로 작년엔 '아흡수'였는데 만 나이로 바뀌면 올해도 '아흡수'인 거냐"며 웃었다.

already@yna.co.kr

## "한두살 어려진 한국"... 외국 언론에 비친 신기한 나이 조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첫날인 28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관심 있게 전했다.

일부 외신은 위계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나이 변화가 갖는 의미를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현지시간으로 27일 '새로운 나이 계산법 덕에 모든 한국인이 최소 한 살 더 젊어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다.

이 매체는 "한국인은 자궁에서 보낸 시간을 나이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보다 통상 한두살 더 나이가 많다고 여긴다"라며 "주요 국가 중 이런 관습을 가진 곳은 한국

이 유일하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전통적인 나이 셈법은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사회환경과 직장에서 널리 사용돼왔다"라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경우 전통 셈법에 따른 '한국 나이' 외에 '만 나이'와 '연 나이' 등 총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1977년 12월 31일생인 가수 싸이를 예로 들며 그가 만 나이로는 45세지만, 연 나이로는 46세, 한국 나이로는 47세라고 설명했다.

BBC는 "만약 이게 혼란스럽게 들린다면,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다양한 시스템을 오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조차 '너 몇살이냐'라고 먼저 묻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만 14세인 학급 친구들이 만 13세인 같은 반 친구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엄격한 위계 체계에 익숙한 한국 사회 일각에선 새 제도 시행으로 다소간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WSJ은 '나이 계산기'의 등장 소식도 전하면서 "일부 한국인은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 기업들과 정부 기관은 만 나이 계산법을 알려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pan@yna.co.kr



내일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톤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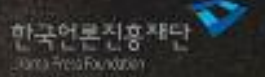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QR코드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광고 수수료를 지원받고  
보내되었습니다.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28

#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립김규만 남이 재단인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하느님이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46 Ash St, Newton MA 02466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du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u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심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 간판 및 사인

초이스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Dry Cleaners for Sale

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세탁소 매매  
2Milli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Watertown  
연매상 350K

**781.883.5984**

##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사나운 장맛비'...남부 밤사이 '물폭탄'에 1명 실종 · 침수 속출

남해 시간당 74.5mm · 광주 이틀간 283.8mm 내려 농경지 잠기고, 도로 막히고, 전기 끊기고...전남 1천862ha 침수

(전국종합=연합뉴스) 요란하게 시작한 장마로 남부지방에 이틀간 최대 283.8mm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도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인명 사고도 잇따랐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0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주 283.8mm, 전남 담양(봉산) 220mm, 전남 화순(북면) 210.5mm, 경남 남해 209.6mm, 전북 순창(풍산) 196.5mm, 경남 사천 182mm, 전북 고창(심원) 174mm 등이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산간, 부산, 경남, 충남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이날 오전 모두 해제됐다.

비는 27일 오후 9시~28일 오전 3시 사이에 집중됐다.

경남 남해에서는 27일 오후 8시 24분부터 1시간 동안 74.5mm 폭우가 쏟아졌다.

전남 함평과 경남 사천에서도 오후 10시를 전후해 각각 시간당 71.5mm, 70mm의 강한 비가 내렸다.

27일 오후 10시 23분께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수리시설 감시원 오모(67)씨가 엄다천과 함평천을 연결하는 수문 주변에서 부유물 등을 제거하다가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28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석곡동 석곡천에서는 제방이 유실돼 주민 100여명이 인근 초등학교강당으로 대피했다.

동구 소태동 한 주택에서는 소나무가 쓰러져 인근 5가구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전복돼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내기와 수확을 앞둔 농가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현재까지 전남도에 집계된 벼 침수면적은 나주 486ha, 보성 415ha, 고흥 307ha, 곡성 154ha, 여수 145ha, 장성 125ha, 함평 85ha 등 총 1천862ha다.

나주와 보성의 시설하우스 3.8ha도 침수돼 멜론·레드향·애호박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유통센터와 광산구 우산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금호동·쌍촌동·백운광장 등 도심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

광주 도시철도 공사 현장 주변 버스 정류장 도로가 침수되고 인도에서는 침하 현상이 발생해 한때 통행이 통제됐다.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는 산책로 주변 야산에 쌓인 석축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낙뢰로 인한 정전도 잇따랐다.

나주 335가구 전력 공급이 3시간 넘게 중단됐고 광주 광산구 임곡동 일대 100여가구도 한 시간가량 전기가 끊겼다.

광주 서구 금호동 아파트 상가 등 30세대도 변압기 화재로 2시간가량 정전됐다.



28일 오후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하천에서 소방 특수구조대원이 전날 밤 폭우 피해를 막으려다가 실종된 수리시설 감시원을 찾아 수중 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만 185건, 전남에서 85건의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새벽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린 전북 고창에서는 주택 지붕이 침수됐다.

정읍에서도 음식점 1층이 침수되고 순창에서는 밭의 토사가 주택으로 쓸려 내려와 복구 작업을 하는 등 밤사이 11건의 안전조치와 5건의 배수조치가 이뤄졌다.

경남에서도 60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이날 0시 40분께 경남 통영시 광도

면 안정리 국도 77호선에 토사와 낙석 일부가 쏟아져 왕복 2차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오전 3시께 응급 복구를 마쳤다.

경남 남해군 이동면과 삼동면 등 4개 지역에서는 주택 침수로 총 4명이 대피했다.

지리산, 무등산, 덕유산, 내장산 등 8개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광주, 전남, 전북, 경남의 지하차도와 둔치 주차장 등 50여곳 통행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비가 서쪽에서 발달하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9~30일

50~120mm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과 서해5도, 일부 내륙은 150mm 이상이 내리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7월 1일까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피해가 우려된다"며 "계곡이나 하천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에도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 "농사 망친 게 대수인가요, 실종된 이웃 돌아왔으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년 농사 망친 게 사람 목숨에 비하면 대수인가요."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아리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모(58)씨는 28일 흙탕물에 잠긴 농경지를 내버려 두고 소방 특수구조대원의 수중 수색이 이어지는 마을 하천 수문으로 발길을 옮겼다.

통상 한달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전날 밤 이곳에서는 수리시설 감시원으로 활동하는 60대 마을 주민 1명이 실종됐다.

김씨는 "제방 밑으로는 저기 안쪽 마을 입구까지, 과장 좀 보태면 집 빼고 동네가 다 잠겼다"며 "이렇게 농경지가 잠겨버릴까 봐 수문을 열려고 그 위험한 밤에 여기까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웃이기도 한 수리시설 감시원이 거짓말처럼 돌

아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김씨는 얼마 전 모내기를 끝낸 들녘이 걱정돼 자신도 전날 밤 집을 나서려 했지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줄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섬진강이 범람해 구례 시가지 전체가 잠겼던 3년 전 여름에도 어제만큼 비가 내리지는 않았다"며 "내일 또 큰비가 내린다는데 더 심한 피해가 날까 무섭다"고 한숨지었다.

밤새 퍼붓던 장맛비가 그치면서 함평천과 엄다천 합류부에 자리한 수문 주변에서는 소방 특수구조대원의 수중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원들은 하천 수위가 내려가자 산소통 없이 물속에 들어가 안전 밧줄에 몸을 지탱하며 수풀과 바위틈 사이를 신중하게 살폈다.

탁한 흙탕물 탓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수중을 손으로 훑어가며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실종자의 흔적을 탐색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실종자 수색에 인원 43명, 장비 24대를 투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실종자 1명이 집계됐다.

주택 침수 우려 등으로 인한 이재민은 광양, 순천, 무안 등 3개 시·군에서 5세대 5명이 발생했는데 일부는 비가 그치자 집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이재민은 친인척 집에 머물고 있다.

농경지 1천862ha, 비닐하우스 등 재배 시설 3.8ha가 물에 잠긴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작물 별로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한 벼가 1천829ha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hs@yna.co.kr



28일 오후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하천에서 소방 특수구조대원이 전날 밤 폭우 피해를 막으려다가 실종된 수리시설 감시원을 찾아 수중 수색을 하고 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43) 놀라운 HSA 투자

HSA (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을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직장인이 디덕터블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이 높은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HSA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싱글이면 \$3,850 그리고 부부는 \$7,7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싱글이면 \$4,150 그리고 부부는 \$8,3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가입자의 나이가 55살 이상이면 \$1,000 더 투자할 수 있다. 이 뜻은 부부가 최대 \$10,3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직장인이 HSA에 투자하지 않고 \$1불을 받으면 사실은 \$1불이 아니고 단 \$0.61센트 만을 가지고 온다. 뉴욕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연방 세금이 2%, 주정부 세금 6.65%, 그

리고 소셜 세금(FICA) 7.65%를 제하고 나면 61센트가 되기 때문이다.

401(k) 투자로 불어난 자금을 대해서는 은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Income Tax)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로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HSA에 적립한 돈을 의료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하지 않고 현금처럼 보관할 수 있다. 이것은 큰 실수다. HSA는 401(k) 처럼 투자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해야 투자한 돈이 불어난다. 지난 10년 S&P 500 Index의 평균 수익률은 12.5%이다. 투자한 돈이 거의 3배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HSA에 적립한 돈을 S&P 500 Index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인은 직장을 자주 이동한다. 401(k)와 같은 은퇴자금은 금융회사로 롤오버

(Rollover)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의 은퇴플랜으로 옮긴다. 그러나 HSA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자금보다 더 중요하기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본인의 건강은 물론 온 가족이 건강하여 의료비용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HSA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 그러나 65살 이후 정부 의료 보험 (Medicare Part B)의 할증료(Premiums)가 \$4,000까지 된다. 의료 비용은 의료보험의 모든 디덕터블, 덴탈(Dental),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약값,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아이들 차야교정 등으로 사용된 영수증을 보관하면 2, 30년 후 HSA 돈을 사용할 때 의료 비용이라고 증명할 수도 있다.

HSA 투자 금액 \$7,000씩 8%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34만 불 30년 투자하면 85만 불로 불어나는 큰돈이다. 이렇게 불어난 돈에 대해서 수입세도 내지 않는다면 놀라운 은

퇴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 돈이 불어날 수 있는 이유는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세금 유예를 받고 투자로 얻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유예되기에 투자한 돈이 세금 부담 없이 복리로 꾸준히 불어나기 때문이다. 놀라운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로 기하급수적으로 투자한 돈이 불어나는 것이다.

직장인이 기억해야 하는 투자순서는 회사가 401(k) 투자에 대한 매칭(Matching)까지 투자, 그다음은 HSA 투자, 다시 401(k)로 돌아와서 최대 금액 투자(Max \$22,500 & 50살 이상 \$30,000), 그리고도 여유가 되면 개인 IRA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다.

HSA를 단순히 의료에 관한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이용하면 노후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장 다니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27)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822년(헌덕왕14년), 웅천주 도독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신라의 9주5소경 가운데 5주3소경이 김현창의 뜻에 따라 반란에 가담하였다. 이어 김현창은 장안국을 세우고 경운(慶雲)이라는 연호도 썼다. 당시 신라는 진덕여왕 때부터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독자적으로 연호를 썼다는 의미는 신라 조정에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당나라에 대한 사대를 배격한다는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현창이 세운 장안국의 영토는 70년 후에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영토와 면적이 비슷할 만큼 방대하였다. 삼국사기에 보면, “웅천주 도독 현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하락” (신라본기 헌덕왕 14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킨 주된 이유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 삼국사기의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려 37년간이나 절치부심하였다.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80년(해공왕16년), ‘김지정의 난’ 이 일어났다.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왕이 살해되었다(누가 살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삼국유사에는 김양상 일파가 살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공왕은 후사가 없었고, 차기

왕은 김양상이 차지하였다. 그가 제37대 선덕왕이다. 선덕왕도 후사없이 785년 사망하였다. 그래서 조정의 대신들은 무열왕 김춘추의 차남인 김인문의 현손 김주원을 추대하였다. 북촌에 살고 있던 김주원이 즉위를 위해 대궐로 향했다. 그러나 겨울 폭우로 불어난 알천(현재의 북천)을 건너지 못하고 지체하는 사이에 대궐에 있던 상대등 김경신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제38대 원성왕이다. 6부 손장들이 모여 박혁거세를 임금으로 세우고 나라를 건국할 것을 논의한 알천關(가로 막을 關)은 김주원의 왕위를 이름 그대로 막아버리고 말았다. 이에 김주원은 후환이 두려워 명주(현재의 강원도 강릉)로 도피하였다. 이듬해(786년) 원성왕은 김주원을 명주군왕으로 봉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후에 김주원은 강릉 김씨 시조가 되었다. 아버지 김주원은 명주로 피신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중앙정계에 계속 남아서 장남 김종기는 시중을 역임하였고 차남 김현창은 807년(제40대 애장왕8년) 이찬(2등급)의 관등으로 시중에 임명되었다. 813년(헌덕왕 재위시) 무진주 도독으로 갔다가, 814년 다시 시중에 올랐다. 816년 청주도독을 거쳐, 821년 웅천주 도독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거기서 지방의 5주3소경의 도독들의 호응을 받아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가문의 왕위 쟁탈전과 지방 좌천’ 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지배적이지만 당시 상황을 좀더 자세

히 보면 그는 아버지가 빼앗긴 왕좌보다는 자신이 앉을 수도 있었던 왕좌가 날아간 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정황이 상당하다. 김주원의 왕위를 가로챈 원성왕은 자신의 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날 내린 폭우와 임금이 된 자신은 모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었다고 했다(삼국사기). 원성왕에게는 장남 김인겸, 차남 김의영, 삼남 김예영이 있었다. 해충 태자인겸은 장남 준옹을 비롯하여 언승, 수중, 충공 네 아들을 남기고 조졸하였다. 그러자 원성왕은 차남 의영을 현명태자로 책봉하였다. 불행하게도 현명태자마저 곧 사망하였다. 788년 원성왕이 사망하였고, 태자로 책봉되어 있던 손자 준옹이 즉위하니 그가 소성왕이다. 소성왕도 800년 장남 청명(중희)과 차남 체명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어서 열두 살된 청명이 즉위하였으니 그가 제40대 애장왕이다. 처음 5년간은 숙부인 병부령 김연승이 섭정을 하였다. 그런데 801년 상대등에 오른 김연승은 권력의 ‘달콤한 맛’ 을 잊지 못했음인지 당질, 즉 자신의 숙부인 김예영의 손자 김제룡(제용)과 합세하여 애장왕과 왕제 체명을 함께 주살하고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가 제41대 헌덕왕이다. 이 거사에 당시 시중이었던 김현창과 왕제 김수중도 주동적으로 참여하였다. 헌덕왕은 826년까지 재위하였는데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다(아들 둘이 있었는데 모두 당나라에 들어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822년 정월에 동생인 김수중을 태자로 책봉하였

한편 김현창은 이찬(2등급)의 벼슬로 중앙에서는 시중, 지방에서는 도독(무진주, 청주, 웅천주)으로 지내면서 이반된 민심과 호족들의 발호를 직접 목도하였다. 김현창은 지방의 호족들이나 백성들의 불만과는 동일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조정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무열왕계의 후손인 그는 ‘족보가 불분명한’ 선덕왕을 거쳐 내물왕의 방계족인 원성왕과 그의 자손들이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의 왕좌를 탈취한데 대한 불만을 늘 품고 있었다. 그리고 헌덕왕을 이을 후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이 차기 왕위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함께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김연승(헌덕왕)은 자신의 동생인 김수중(후에 흥덕왕)을 태자로 책봉하였다(822년1월). 정황상 김수중의 태자책봉이 김현창으로 하여금 동년 3월, 그간 확장한 세력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순히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칭제건원’ 을 하였으니 무열왕계를 이을 새로운 왕조를 오랫동안 준비하였음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www.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NE 29<sup>TH</sup> - JULY 6<sup>TH</sup>, 2023**

**Roasted Dried Fish Fillet**

쥐포구이채/구운쥐치포/  
구운양태포채/구운아귀포  
**1 EA + 1 EA/PKG**

~~REG. \$14.99~~

**\$8.88**



**건어물 4종 한정판매!**

**1+1 deal in 1 bundle**  
**1+1 묶음 기획 상품**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 '기적의 형제' 정우 "끝내주는 대본... 운명적 만남이라 느꼈죠"

가진 거라고는 빛뿐인 작가 지망생 역...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서울=연합뉴스) 오명언기자 = "" 현장에서 연기할 때 이 대본과 저는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느낄 정도였

어요"

JTBC 새 드라마 '기적의 형제'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정우는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글의 완성도에 여러 번 감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밀도 있고, 순도 높고, 한마디로 그냥 끝내주는 대본이었다"며 "통상 대본을 볼 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감정선에 따라 읽게 되는데, 이 대본은 모든 캐릭터가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글에 완전히 설득됐다"고 말했다.

정우는 '기적의 형제'에서 가진 거라고는 빛뿐인 육동주를 연기한다. 국문과를 졸업하고 7년째 비정규직으로 도로를 누비지만 언젠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쥐겠다는 야심 찬 꿈을 꾸고 있다.

육동주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일단 덤벼들고 보는 급한 성질과, 애들러 말할 줄 모르는 직선적인 말투를 갖고 있다. 까칠해 보이지만, 타고나기를 동성심 많고 인정도 많은 남자다.

정우는 "육동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는 인물"이라며 "현실적인 면모도 갖춰 시청자들께서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재가 겹쳐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느낄 만큼 바닥을 찍은

어느 날, 육동주는 우연한 사고로 소년 강산을 만난다.

육동주는 강산이 지니고 있던 가방 속에서 한 소설 원고를 발견하고 기억을 잃은 강산을 대신해 이를 출판한다. 그토록 원하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만, 소설 속 살인사건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연쇄살인범의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까지 받는다.

강산 역을 맡은 배현성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소년을 연기한다"며 "초능력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고, 강산과 육동주의 티키타카가 재밌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이어 "불의를 보면 거침없이 뛰어 들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 등 여러 감정에 공감을 되게 잘한다. 보시는 분들도 강산에게 따뜻한 위로 받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출을 맡은 박찬홍 PD는 "가끔 살다 보면 기적을 바랄 때가 있는데, 그런 기적의 순간을 드라마로 구체화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8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

coup@yna.co.kr

7월 2일 - 7월 8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http://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b></p> <p>● 운수;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금전: 아직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복 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4, 6일 길일, 2, 8일 주의.</p>	<p><b>소띠   차분한 마음으로</b></p> <p>● 운수;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 금전: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돈 문제로 잔신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 애정: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4, 5일 길일, 3, 7일 주의.</p>	<p><b>범띠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b></p> <p>● 운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손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사들이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 8일 길일, 2, 4일 주의.</p>
<p><b>토끼띠   크게 기지개를 펴고</b></p> <p>●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크게 기지개를 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자신을 늘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 4일 길일, 2, 5일 주의.</p>	<p><b>용띠   훌훌 털어버려야</b></p> <p>● 운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 금전: 돈에 연연하다가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 애정: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 5일 길일, 3, 6일 주의.</p>	<p><b>뱀띠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b></p> <p>● 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 금전: 나가는 것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기대해도 될 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피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5일 길일, 4, 7일 주의.</p>
<p><b>말띠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b></p> <p>● 운수;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 금전: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며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지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p>	<p><b>양띠   미리 대비를 해두는</b></p> <p>● 운수; 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8일 길일, 3, 6일 주의.</p>	<p><b>원숭이띠   밝고 환하게 웃는</b></p> <p>● 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 금전: 나가는 것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기대해도 될 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피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5일 길일, 4, 7일 주의.</p>
<p><b>닭띠   감사하는 마음으로</b></p> <p>● 운수;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베푸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아끼고 아끼던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6일 길일, 5, 8일 주의.</p>	<p><b>개띠   냉철하게 살펴보고</b></p> <p>● 운수; 귀가 알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현금 흐름을 잘 살펴봐주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허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8일 길일, 3, 6일 주의.</p>	<p><b>돼지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b></p> <p>● 운수; 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원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기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5/26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3/10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2/3  
Tel. 978-343-6080, 978-407-9029

덴탈 랩 매매합니다. 1/20  
Tel. 508-215-9122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1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뮤지컬 '그날들' 10년 출연 유준상 "20대의 나 볼 수 있어 행복"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10년 동안 출연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극의 모든 장면이 공감되기 시작했어요."

뮤지컬 '그날들'에 10년째 출연하고 있는 배우 유준상(54)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해하게 됐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미련도 경험한 나이가 됐다"며 "10년 동안 출연해보니 대사 한 마디에도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날들'은 2013년 초연됐다. 이 작품은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20년 전 발생한 대통령 딸 실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다룬다. '거리에서', '사랑했지만' 등 고(故) 김광석의 명곡을 사용한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다음 달 12일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1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유준상은 그동안 김광석의 노래를 수없이 불렀지만, 공연 때마다 애착이 가는 곡이 달라진다고 한다.

"공연에 들어가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울컥 눈물이 납니다. 40대 중반에 공연할 때는 '서른 즈음에'를 노래하며 평평 울었어요. 5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거리에서'를 부르며 오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준상은 "김광석의 노래는 가사에 힘이 있다"며 "'거리에서'를 연습할 때 실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산책로에

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다. 그때 마음 속에 다가오는 가사의 힘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작품 전개를 따라 유준상은 경호부장 차정학의 20대와 40대 모습을 번갈아 연기한다.

그는 "20대의 나를 무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다"며 "지난 간 20대를 무대에서 연기할 수 있고, 관객들은 내 20대를 볼 수 있다. 그러려면 더 스스로를 관리하고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시간을 넘나드는 연기가 주는 긴장감을 소개했다.

유준상의 목표는 앞으로 '그날들'에 10년 더 출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다고 한다.

"배우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노래, 연기를 포함해 어떤 훈련이든 한 시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실력이 늘고 좋은 소리가 나오면서 발전하게 돼요."

유준상은 공연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는 방식으로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 '그날들'의 노래를 부르며 '1일 1리 허설'을 한다.

그는 "김광석의 노래 가사를 많은 분이 알고 있어서 애드리브로 지어낼 수가 없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며 "다른 작품에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실수를 안 한다"고 말했다.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 유준상은 팬들에게 받은 진심을 돌려주기 위해 무대에서 모든 힘을 쏟아낸다. 그는

팬들에게 "언제나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모자랄 때는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무대도 화려해지고 크게 발전했다"며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관객을 못 채워주면 볼거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팬들이 뮤지컬을 보러 오지 않는다. 배우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유준상 곁에는 힘이 되어주는 친구와 귀감이 되는 인물이 있다.

그는 "(저와) 함께 '뮤지컬 1.5세대'로 불리는 최정원 배우와 둘도 없는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조금만 더 잘 버티자'고 서로 격려한다"며 "뮤지컬에 대한 애착이 크다. 절실했던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준상은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2016)'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수목화의 대가 소산 박대성 선생에게서도 '롱런'의 비결을 배웠다.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는 화가이면서도 매일 아침 한 시간씩 글씨를 연습하는 대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여전히 새로운 배역에 끌린다는 유준상은 80세를 넘길 무렵까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힘이 남는 한 뮤지컬에 도전하다 여든 살이 넘으면 '노인과 바다'로 뮤지컬에서 은퇴하고 싶어요. 마음가짐을 잘 유지해서 10년 뒤에 같은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여전히 매일 연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ambo@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경기 '연천파크골프장' 에 다녀와서...

사경기 북부 최전선 지역인 617-4 Jinsang-ri Gunnar-Myeon, Yeoncheon-gun, Gyeonggi-do 지역에 '연천파크골프장' 이 지난 2022년부터 오픈을 했다. 자동차로 오는 길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국도 3호선을 따라 서울 경계부터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거쳐 연천 청산까지 36.7km를 남북으로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한다. 경원선 전철을 타면 성북-청동-도봉산-의정부-양주-덕계-덕정-동두천중앙-동두천-소요산-초성이-전곡, 전곡역에서 내려 버스나 택시를 타고 군남면 진상리 '연천파크골프장' 을 찾아오면 된다.

경기 북부가 고향인 나는 엄마.아버지 산소를 찾아보려고 막내 언니 집에 갔다가 '연천파크골프장' 을 알게 되었다. 놀라움이었다. 연천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과 양평, 일산 그외의 지역에서도 파크골프를 즐기는 마니아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양평에서 오신 분의 말씀이 더 재밌다. 대한민국 여러 곳 파크골프장

을 돌아봤지만 이곳이 여러모로 깔끔하고 흠마다 마음에 들어 친목단체에 클럽 팀들과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마음에 들면 먼 거리는 상관없다는 모양이다.

6월 26일이 <제1회 농촌이랑 파크골프 대회>가 있던 날이었다. 이날 대회는 '농민신문사' 주최, 후원은 NH농협으로 열렸다. 이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는데 참가 인원의 숫자가 400여 명이 모였다. 이번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분들이 있었다. 김덕현(연천군수), 임철진(연천농협 조합장), 현상태(임진농협 조합장), 최종철(전곡농협 조합장), 오문석(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장) 이날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이 우비를 입고 36홀을 돌아 순위를 정하게 되었다. 끝까지 대회를 마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농업지역인 곳

이기도 농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파크골프장에 간식을 들고나와 기분 좋은 운동을 하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골프장에는 A,B,C,D로 홀이 나뉘어 있어 쉽을 갖고 다시 시작하기도 편리해 좋다. 연천 주민들에게는 골프라운딩 비용이 1인당 1,000원이며 타지역 주민들은 3,000원이라고 한다. 가격이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이니 매일 걷기 운동이 되었으며, 다리가 불편한 분들도 전동차를 타고 와서 운동감 하고 있는데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연천파크골프장' 옆에는 역사의 현장인 '임진강' 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38선으로 남북이 선명하게 갈라진 곳에서 강물은 말없이 마음을 훑고 흐르고 있었다. 마음이 몽클해졌다. 그래도 희망이 보였다. 이렇듯 최전선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많은 인파들이 들쭉거리며 모여드는 것이 알록달록 각자의 색깔의 웃을 차려입고 즐거운 모습으로

임진강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게는 참으로 감동으로 다가왔다. 아, 머지 않아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이북의 동포들이 '연천파크골프장' 에서 함께 흥겨운 게임을 하며 노래부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나도 막내언니와 언니 친구들과 함께 '연천파크골프장' 에 들러 두 번 라운딩을 했다. 임진강에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 사이로 흐르는 6월의 바람이 참 좋았다. 어찌면 미국에 돌아가서도 아주 오랫동안 '연천파크골프장' 을 그리워하기도 모르겠다. 이 골프장을 만들려고 처음 아이디어를 착안한 분이 퇴직한 군수이셨단다. 이 부지를 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좋은 경관과 위치를 통해 더 멀리 볼 수 있는 미래를 꿈꾼 이들이 있어 오늘을 누리는 것이니까. 모두가 감사한 일이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경기 '연천파크골프장' 이 '통일로 향한 길, 통로' 가 되길 기도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구구단

x	1	2	3	4	5	6	7	8	9
1	1	2	3	4	5	6	7	8	9
2	2	4	6	8	10	12	14	16	18
3	3	6	9	12	15	18	21	24	27
4	4	8	12	16	20	24	28	32	36
5	5	10	15	20	25	30	35	40	45
6	6	12	18	24	30	36	42	48	54
7	7	14	21	28	35	42	49	56	63
8	8	16	24	32	40	48	56	64	72
9	9	18	27	36	45	54	63	72	81

수학자가 쓴 글을 읽었다. 그는 꽤 이름있어 보이는데, 한국 저명대학 수학과 교수이다. 그가 실토했다. 그는 어릴 적에 구구단을 도저히 외울수 없었다는 거다. 남들은 다외는 구구단을 말한다.

외울 수 없던 구구단 때문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서러웠다. 그러나 그는 벽에 붙여놓은 구구단 표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순간 환호했다던가. 그가 발견했다는 위대한 비법이다. 구구단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숫자들이 대칭을 이룬다는 거다. 그 순간 수학자의 길로 반쯤은 접어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수학자가 권한 게 있다. 수학책을 한번쯤 읽어 보라는 거다. 나역시 그의견에 적

극 동의 하는데 아이가 어릴적 보던 책이었다. 일본 학자가 지었고, 기초 숫자놀음을 그림과 더불어 정리한 책이다. 잠안오는 밤이면 (그럴 경우는 드물다), 이따금 이책을 들춰본다. 재미 역시 삼삼하다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한다. 금새 잠에 빠지기 때문이다. 수학 참고서 수학의 정석도 아닌데도 말이다.

수학과 시는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수학에 관한 시 한편이다. 몇줄만 옮긴다.

수없는 미분속에  
마음이 상해갈 땐  
차라리 0이되자  
...  
미분되도 잃을게 없고  
있지만 없는것인  
0이되어 잠시 쉬어가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차라리 0이 되자 중에서)

어릴 적이 떠오른다. 남들은 쉽게 쓰는 아라비아 숫자를 나는 제대로 쓸 수 없었다. 1, 2, 3... 9, 10 까지 말이다. 특히 8자가 그러했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0을 눈사람처럼 얹어 위아래로 그려 넣는 거다. 숫자 0을 이용한 나만의 기특한 비법이 라 여겼지만, 지켜보던 선생님은 얹게 웃는 표정을 지었다. 시처럼 차라리 0이 되었던 거다. 동그라미 0을 나는 무척 잘 그렸다.

오늘은 이천이십삼년 유월 이십이일 이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는 누가 만들었나. 아라비아 상인들이 만들었을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요한계시록 13:1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근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부민병원 서경목 스포츠재활센터장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손 아프면 무조건 골프 쉬세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서경목 스포츠재활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골프로 인한 손의 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골프는 '그립(골프채를 쥐는 동작)에서 시작해 그립으로 끝난다."

골퍼라면 누구나 "다른 건 다 참아도 손·손목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에 공감할 것. 하지만 아마추어는 물론 타이거 우즈, 고진영과 같은 프로골퍼도 피하지 못하는 게 손·손목 부상이다. 오히려 골프채를 오래, 자주 잡는 프로골퍼가 손과 손목 손상에 시달리기 쉽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경목 서울부민병원 스포츠재활센터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교과서적으로 골프공을 때릴 때의 충격은 1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와중에 같은 부위에 충격이 누적돼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손과 손목 부상은 오른손잡이는 왼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서 잘 나타난다. 빨리 치료할수록 손상도 덜하고 치료 기간도 짧아져 조기 대처가 중요하다. 서 센터장은 "골프를 칠 때 손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면서 "일주일 이상 같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똑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증상이 심해지면 정밀 검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경목 센터장이 골퍼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손·손목 부상 다섯 가지를 꼽았다.

방아쇠 수지(트리거 핑거)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힘줄(굴건)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서 통증과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병이다. 주로 엄지와 약지에 자주 발생한다. 손가락을 접거나 펼 때 통증과 함께 힘줄이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 골퍼의 흔한 손과 손목 부상

\*원소 기준



그라픽: 윤선정 디자인가자

의심해야 한다.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처럼 손가락을 움직일 때 방아쇠를 당기듯 '딸깍'하는 마찰음을 본인이 느끼기도 한다.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충분히 휴식하면 자연히 낫지만, 통증 등 증상이 계속되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심한 경우 손바닥을 1cm 정도 찌고 힘줄이 걸리는 부위를 부분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기 퇴행성 관절염

골프채(클럽)를 잡는 방법은 크게 오버래핑, 인터로킹, 베이스볼 그립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왼손 검지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꼬아서 잡는 인터로킹 그립을 친다면 각 손가락이 받는 충격이 특히 강해서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 사실 손가락은 무릎 다음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오는 부위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어린 나이에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류마티스나 통

풍과 비슷해 X선 등 정밀 검사로 감별해야 한다.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붓거나, 특히 저녁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하고 약물·주사·물리치료 등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손목건초염(드퀘르벵 건염)

손목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힘줄(건)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손목건초염이다. 처음 이 병을 소개한 스위스 의사의 이름을 따 '드퀘르벵 건염'이라고도 부른다. 그립을 너무 강하게 칠 때 잘 생기는데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아래로 꺾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주사치료, 물리치료, 진통제 복용 등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이런데도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건막)을 절제해 압력을 풀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손상

TFCC는 8개의 손등뼈와 손목뼈(척골) 사이

의 연골과 인대의 복합체로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연골이 찢어지거나 염증 등의 손상이 발생한다.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새끼손가락 쪽 손등에 위치해 있다.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위는 애초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아서 한번 다치면 회복이 더딘데 강한 힘으로 손목을 비트는 골프, 테니스, 야구 등 스포츠를 하다 다치는 경우가 특히 많다. 손목을 구부리거나 돌릴 때, 손을 짚을 때 새끼손가락과 손등에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휴식하거나 석고로 손목을 고정하고, 만약 연골과 연골 범위가 넓거나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관절경을 이용해 연골을 다듬거나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결절종

결절종은 손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쉽게 말해 '물혹'이다. 얇은막안에 젤라틴과 같은 끈적한 액체가 차면서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의학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크기가 커 미용상 보기 흉하거나 혈관·신경을 눌러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강제로 눌러서 터트리거나 주사기를 이용한 흡입술, 절개 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057633?sid=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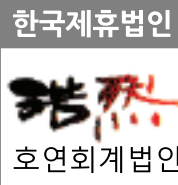
"손 아프면 골프 쉬세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전상품 1년 약정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이해

100년전에 누군가가 “요즘 미국경제가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뉴욕항구에 배가 얼마나 기항하는지, 옥수수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대답할 수 있어도, 경제의 개념은 축정이 불가했다. 그러나 경제상태에 대한 축정은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전체가 얼마나 나쁜 상황인지를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Simon Kuznets라는 학자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내의 모든 물자들의 생산량을 집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1934년에 “국민 소득(National Income 1929-1932)” 라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부터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이라는 개념이 국가의 경제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일부 지식인들은 하나 둘씩 경제라는 개념도, 물리학이나 수학처럼, 일정한 방정식과 변수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경제 정책가들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면 어떤 정책

을 펴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개념이 이때 생긴 것이다.

2차대전이라는 위기는 미국에게 경제의 총괄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게 된다. 전쟁에 참전했다고 모든 옷공장들이 군복을 만들 수 없고, 자동차공장들이 군용차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경제 자체가 붕괴되고 만다. 일부 경제역사학자들은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경제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후에 이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이라는 개념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민 총생산량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순위를 정하듯이 GDP에 의해서 국가들을 서열순서를 정하기 시작했다. 즉, GDP가 높은 국가는 선진국이고 낮은 국가는 후진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냉전시대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제방식 결투를 GDP로 측정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GDP가 공산주의 국가들의 GDP보다 높았으

므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GDP를 높이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도 한다. 이태리는 일반적으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경제(마피아 범죄집단이 생산하는)가 크다. 자국의 GDP를 높이기 위해서 이태리는 지하경제를 GDP계산에 포함시켰다. 결과는 단 하루만에 이태리 경제가 영국의 경제를 능가했다. 그러나 실상 이태리의 경제는 하루 전이나 영국을 능가한 하루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자신의 체감온도일 뿐이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GDP를 다시 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Simon Kuznets마저도 GDP는 경제측정 수치 중에 하나일 뿐이지 경제 전체판단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GDP는 삶의 질, 국민행복도, 사회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도 경제에 있어서 큰 수치를 내포한다. 주택 소유율로 따지면 2008년 금융과동 직전에 69%정도로 제일 높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아메리칸드림의 주택 소유율을 안정

적인 62%에서 69%로 올리는 과정에서 서브프라임용자, 주택시장의 거품이 생겼다고 믿는다. GDP와 마찬가지로 숫자상으로 향상은 표면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기에 Humanism(인도주의)를 배제한 발전은 그저 수치일 뿐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 성형 패키지 특별가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함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TALK 010-3469-4040 / ID : hureamkorea  
huream@huream.kr / www.hureamkorea.com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